

연예

12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논란의 불씨만 키운 CJ ENM நட장 사과

“엑스원·아이즈원 활동재개 협의 중” 멤버들의 소속사는 “일방적 통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당황스럽다. 일방적 통보일 뿐이다.”

케이팝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 조작 논란 사태 이후 5개월 만인 12월30일 허민희 CJ ENM 대표이사사가 이에 공식 사과하며 배출 그룹 엑스원과 아이즈원의 향후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엑스원과 아이즈원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 대표는 “두 그룹도 피해자”라며 “최대한 빨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멤버들과 각 소속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고, 또 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그룹이 빠른 시일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 멤버들의 소속사 측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그룹의 팬들은 “더 이상 그룹 존속의 명분이 없다”며 멤버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엑스원과 아이즈원의 소속사 측도 마찬가지다. 일부 관계자들은 12월31일 “우리고 (활동 재개)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최근 CJ ENM 측에서 각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만나 논란에 대해 사과한 일 밖에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협의도 나누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면서 ““조작그룹”이라는 오명을 쓰고 어떻게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조만간 소속사 대표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 확정된 사안이 아닌 데도 일단 공을 우리에게 넘겨 논란을 피하게겠다는 뜻 아니냐”며 격분했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데뷔 30년만에 역주행’ 가수 양준일의 생애 첫 팬미팅



탑골지디? 기적이죠!

가수 양준일이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연 팬미팅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감격해했다.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기획사 리브콜에 광고모델까지 팬들에 보답 위해 앨범·책 제작 “그리운 한국, 여기서 살 거예요”

“미러클!” 2020년 새해를 ‘어메이징’하게 맞는 이가 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미국 플로리다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세밀 국내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가수 양준일(51)이다. 최근 ‘온라인 탑골공원’ 열풍을 타고 데뷔 30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 그것도 아주 극적이고 화려하게.

양준일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추억을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다. 그는 매일 새로운 순간을 맞고 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머리를 흔들었다.

양준일은 1991년 데뷔해 세 장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2001년 한국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기에 18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현실이 더더욱 믿기지 않는다. 새해를 하루 남겨둔 12월31일,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준 팬들 앞에 섰다.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홀에서 팬미팅 ‘양준일의 선물, 나의 사랑 리베카, 나의 사랑 양준일’을 열고 3600여 팬들과 만났다. 데뷔 30년 만에 처음 펼친 공식 행사였다. 양준일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모은 신드롬 같은 인기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 앨범 발표·책 발간...팬들에게 ‘선물’

양준일의 향후 활동은 팬들과 연예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그는 팬들이 원하는 건 다 하고 싶고, 더 이상 자신을 보기 싫다고 할 때까지 뭉든도 전해보겠다고 말했다. 아홉 살 때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떠나 생활해 온 그는 한국말이 아직 서툴지만 생각을 최대한 솔직하게 전하려 노력했다.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어가 서툴러 도움을 받아 글로 표현하고 싶어요. 과거 제 음반이 중고시장에서 고가로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예전 곡을 모아서 편곡 및 녹음해 앨범으로 다시 주고 싶어요. LP도 다시 제작하려 해요. 정식으로 발표하는 앨범을 갖고 싶더라고요. 하하!”

그는 현재 전속계약과 관련해 각종 연예기획사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팬미팅 하루 전에는 첫 광고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귀국한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다.

양준일은 당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할 계획이다. 국내에 뿌리를 두고 연예활동도 다시 시작할 생각이지만 미국생활을 모두 정리하지 못해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

“한국을 떠나면서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

었어요. 미국인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연예활동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살 거예요.”

● “탑골지디?” 엄청난 영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양준일에게도 딱 맞다. 아이들 못지않은 외모와 체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다. 패션도 마찬가지다. ‘탑골지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3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패션 감각을 자랑한다.

“하하하! 먹는 걸 조절했죠. 하루 14시간 동안 서빙 일을 했어요. 바쁜 날에는 하루에 16km 정도 걸은 셈이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 졸려서 먹지 않았어요. 계란 몇 개 정도가 전부였죠. 살기 위해 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거예요. 패션은 타고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체형을 잘 알아서 그런 것 같고, 뭐가 어울릴지 보면 딱 아는 편이죠.”

인기도 아이돌급이다.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불과 며칠 만에 5500명을 넘어섰고,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옥외광고와 MD상품도 등장했다. 이날 팬미팅에서도 과거 양준일이 의상 위에 걸쳤던 주황색 술(목도리 형태)이 MD로 제작돼 불타나게 팔려나갔다. 그에 대한 관심이 단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풍경이었다. 양준일의 새로운 한 해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020년 안방극장 포문 여는 세 사람

‘낭만닥터’ 한석규
‘IMF 막는’ 심은경
‘죽음 보는’ 옥택연

한석규와 심은경 그리고 옥택연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포문을 연다. 새해 시작과 함께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신 있게 내놓는 신작의 주역들로 저마다 경쟁력을 내세워 기선제압에 나선다.

첫 번째 주자는 한석규다. 2016년 겨울 안방극장에 ‘김사부 열풍’을 몰고 왔던 그가 6일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를 통해 4년 만에 돌아온다. 지방의 허름한 병원을 배경으로 치열하게 환자를 치료하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또 한번 전한다. 시청자는 때론 매설계 몰아치다가도 유쾌함과 부드러움을 내뿜을 줄 아는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전편으로 2016년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석규는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 출연진과 제작진의 끈끈한 팀워크를 이끌고 있다. 시즌1의 또 다른 주역인 강은경 작가와 연출자 유인식 PD가 4년 전 영광 재현에 나선다.

심은경은 ‘금의환향’한다. 15일 방송을 시작하는 케이블채널 tvN ‘머니게임’을 통해 2014년 KBS 2TV ‘내일도 칸타빌레’ 이후 6년 만에 시청자를 만난다. 2017년 일본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현지 활동에 주력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연극무대에 오르고, 6월 일본영화 ‘신문기자’의 흥행 공신으로 활약했다.

복귀 무대인 ‘머니게임’은 ‘제2의 IMF’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정의와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심은경은 근성과 노력으로 공직에 오른 기획재정부 신입 사무관 역을 맡았다.

30대 군필 스타 대열에 합류한 옥택연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5월 현역 만기 제대하자마자 MBC ‘더 게임:0시를 향하여’에 캐스팅돼 여류부터 활영해온 드라마를 22일 공개한다. 입대 전 OCN ‘구해줘’와 tvN ‘싸우자 귀신아’를 통해 주연으로 자리 잡고, 연기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소지섭의 소속사로 등지를 옮긴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극중 타인의 눈을 통해 죽음을 보는 능력을 지닌 예언가를 연기한다. 캐릭터 설정에 따라 최대한 절제된 감정 표현과 눈빛 연기에 도전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직영학원 전국 20곳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정년없는 유망 자격증 ‘공인중개사’...2030 관심도 ↑

새해를 맞이해 새로이 인생 계획이나 목표를 설계하는 이들이 많다. 자격증 취득도 인기 높은 새해 목표 중 하나다.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다.

자격증 취득 열풍 속에서도 꾸준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다.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 응시자 합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3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 시 개인사무소 및 합동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며 중개법인, 부동산 관련 기업, 금융회사 등에 취업도 가능하다. 정년이 없는 직종으로 노후 대비를 걱정하는 중년층에 인기가 높은 자격증이었지만 최근에는 재테크나 스펙 쌓기에 관심 있는 청년층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접수 인원 중 40% 이상은 2, 30대였을 정도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수험생들을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코엑스, 11일 강남 섬유센터와 부산 벡스코 그리고 12일 인천 로얄호텔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합격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 서비스 운영을 통해 수험생을 지원 중이다. 온라인 강의는 물론 전국 20곳에 직영학원을 운영해 철저한 강의 커리큘럼을 선보이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합격자 모임인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를 통해 인맥 형성과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9	8		1		
2	6	8				9		
			6	2			5	
8			2		5	1		
4	6				7		3	
		2	7	4			9	
	8			4	2			
	3					2	7	5
	2		9	7				

	2	5		1		7		
			9		4	5		2
4	1			7				8
	8						7	
6		9				8		1
	3						9	
3				6			5	4
1		2	4		3			
		6	2		1	3		

■ 스도쿠정답

1	7	8	3	2	6	5	2	9
5	2	9	1	8	7	8	6	
9	6	7	4	5	1	8	3	
6	8	5	7	9	2	1	3	
3	2	6	8	1	9	5	7	
7	9	1	5	3	2	6	7	8
8	5	4	2	2	7	4	1	6
7	3	8	1	1	5	9	8	2
2	1	9	8	6	3	4	7	5
7	3	1	6	2	8	9	5	9
6	9	6	5	3	5	8	1	7
4	5	2	5	2	7	1	8	3
6	6	4	7	8	9	5	8	7
2	1	2	8	7	4	3	6	9
5	7	3	8	6	9	4	1	2
4	1	5	8	9	6	2	7	4
2	1	9	4	8	6	7	9	8
4	7	7	1	8	1	6	9	2